

## 보로니스키 자연보호구의 황새 둥지짓기 조사

- 1 **지자체명** : 하바로프스크지방
- 2 **발표자명** : 코르킨·에브게니 (Korkin Evgeniy )  
(아무르스크시 제 3 호 종합학교)
- 3 **활동명** : 둥지짓기 모니터링, 황새보호를 위한 활동
- 4 **활동기간** : 2012 년 5 월 ~ 6 월
- 5 **활동장소** : 하바로프스크지방, 보로니스키 자연보호구
- 6 **활동참가 인원** : 17 명
- 7 **활동을 시작한 경위**

황새는 멸종위기종중의 하나로 이 종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 8 발표요지

러시아연방 하바로프스크지방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습지에는 보로니스키 자연보호구가 있다. 이 자연보호구에서 「포르비카」라는 청소년 환경탐험단이 황새의 둥지짓기를 연구했다.

황새는 희소 가치가 있으며 하바로프스크지방의 레드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이다. 황새는 인간영역을 피해 넓은 늪안에 있는 작은 숲, 한그루 나무가 있는 호수, 작은강, 예전의 강바닥이나 강의 분기점에 둥지를 짓고 있다. 주로 생선, 개구리, 물속에 서식하는 무척추동물 등을 먹이로 한다.

보로니스키 자연보호구에서는 둥지에서 200 이나 300m~2 k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둥지짓기 조사를 했다.

보호구에 있는 모든 둥지에는 번호가 부착되어 있다. 2012 년 5 월~6 월중에 3 개의 둥지에서 시각관측을 실시했다. 인공목제 지지대에 위치하는 10 호 둥지, 인공철근 지지대에 위치하는 77 호 둥지, 떡갈나무 위에 있는 16 호 둥지이다. 관측결과는 연구노트에 기록했다.

16 호 둥지는 이전 백로와 민물가마우지의 서식지였던 오래된 떡갈나무의 5.5m의 높이에 위치해 있다. 둥지의 직경은 120 cm로, 높이는 70~80 cm이다. 조사할 때 황새는 확실히 알을 품고 있었다. 조사에 의하면 황새는 교대로 알을 덥히고 둥지를 떠나는 일이 거의 없었다.

300~350m의 거리에서 망원경과 쌍안경을 이용해 황새가 놀라지 않도록 완전한 침묵을 지키며 조사를 실시했다.

77 호 둥지는 높이 12m 의 철근지지대에 있었다. 약 150~200m 의 거리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나무덤불로 만든 조사지점에서 둥지가 있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잘 조망할 수 있었다. 황새가 불안해 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이상 접근하는 것은 그만두었다.

시각관측에 의하면 77 호의 등지에 황새가 살고 있었다. 한마리는 등지에 계속 앉아 있었다. 등지의 직경은 180~200 cm로 사용된 재료는 크기가 다른 여러 나뭇가지이다.

15 분~30 분마다 정기적으로 다른 한마리의 어미가 날아와 등지에 있는 황새에게 먹이를 전해준다. 이 새가 등지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은 약 3~4 분이다.

등지에 있는 황새는 가끔 일어나 날개를 움직이며 퍼준다. 부리로 등지안의 무엇인가를 만진다. 아마 등지안에 알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시기에는 벌써 새끼가 태어나야 한다. 등지짓기에 시간이 걸리고 봄이 오는 것도 늦어진 것이 원인인지 아마 이 가족은 알을 낳은 것이 늦어진것 같다.

다른 한마리의 황새는 우리가 있는 관측지점 위를 두번 정도 원을 그리는 것처럼 날고 난 후 등지에 있던 황새와 교대했다. 등지를 떠난 황새는 우리를 경계해 관측지점 위를 높이 날기 시작했다.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났다.

먹이를 잡는 곳은 등지에서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다. 주된 먹이는 습지에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는 작은 생선, 양서류, 무척추동물 등이다.

관측한 결과에 따르면 황새가 교대로 알을 품는다는 것과 신중하고 관찰력이 깊은 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보로니스키 자연보호구에서는 2012 년에 51 개의 황새등지가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15 개의 등지는 인공 지지대 (12 개의 등지가 낙엽송 지지대, 3 개의 등지가 삼각대같은 철근 지지대) 에 지었다.

실시한 관측에서 보로니스키 자연보호구 황새의 현재 서식상태가 만족할 만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황새는 안전하고 주변이 잘 보이는 높은 나무에도 등지를 만들고 철근 지지대에도 적극적으로 등지를 짓는다.

자연속의 황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연보호구나 국립공원을 늘리는 것, 인공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 삼림화재방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